

# 담양, 변화하는 농업 ‘현장 대응력’ 높인다

## 내일까지 6개 읍면 순회교육…농촌지도자 310명 대상 AI 체험·단감 재배기술 소개…탄소중립 실천 활동도

전남광주통합시 담양군이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지도자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과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AI 활용부터 신제품 재배기술, 농업안전, 탄소중립까지 농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 농촌의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12일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4일까지 6개 읍면 농촌지도자회원 31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읍면 순회

생활기술 과제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교육은 농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지역 농업의 핵심 리더인 농촌지도자들이 새로운 기술과 정책을 직접 익히고 이를 현장에 확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디지털 기술부터 농작업 안전, 탄소중립 실천, 지역 여건에 맞는 작물 재배기술 등 농업인들의 실생활과 영농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내용이 다뤄지고 있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운영하



14일까지 6개 읍면 농촌지도자회원 31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찾아가는 읍면 순회 생활기술과제교육’ 모습.

는 디지털배움터와 연계한 ‘스마트폰으로 만나는 생성형 AI’ 교육이 회원들의 관심을 끌었다.

참가자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직접 활용하면서 인물사진을 변환하고 다양한 기능을 실습하는 등 디지털 신기술을 체험했다.

농업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스마

트폰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접하고 활용법을 익혔다는 점에서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농촌 현장의 정보 격차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재배기술 교육도 이어졌다.

곡성군 농촌지도관 출신 정규환 담양읍 농업인상담사는 지역의 재배 여건에 적합한 단감 품종의 특성과 재배기술을 소개했다. 담양군은 교육을 통해 새로운 품종에 대한 농업인들의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오는 11월 중순 신제품 단감 ‘감풍’을 회원들에게 보급해 시범재배를 추진할 계획이다.

새로운 품종을 지역 환경에 맞게 시험하고 재배 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지역 농가의 소득 작목을 다양화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육과 탄소중립 실천 활동도 병행했다.

참가자들은 “농작업안전 365” 실천과 탄소중립 영농·생활 실천을 다짐했으며, 고향사람기부제 참여 홍보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활동에도 참여했다.

군 관계자는 “농촌지도자회원들이 생성형 인공지능과 새로운 재배기술을 직접 익히며 빠르게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농촌지도자들이 지역 농업의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이시수 기자 lss270@gwangnam.co.kr



청정 바다의 해풍을 맞고 자라 향과 당도가 뛰어난 ‘완도 자연 그대로 해변 포도’가 출하됐다. ‘완도 자연 그대로 해변 포도’는 포도알이 탱글탱글하고 당도가 14 브릭스(Brix)로 달콤함과 향이 뛰어나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청

## “완도 자연 그대로 해변 포도’ 맛보세요”

올해 48t 생산…높은 당도·진한 향 특징

청정 바다의 해풍을 맞고 자라 향과 당도가 뛰어난 ‘완도 자연 그대로 해변 포도’가 출하됐다.

1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에 따르면 완화한 해양성 기후와 풍부한 일조량, 해풍 등으로 포도 재배에 적합한 군외면 등 20개 농가(13.6ha)에서 캠벨얼리, 샤인머스켓, 거봉 등을 재배하고 있다.

올해 예상 총 생산량은 48t이다.

7월 하순부터 시설에서 재배한 포도가 출하됐으며, 노지 포도 수확은 8월 중순부터 시작된다.

‘완도 자연 그대로 해변 포도’는 해풍을 맞고 자라 포도알이 탱글탱글하고 당도가 14 브릭스(Brix)로 달콤함과 향이 뛰어

나.

포도는 비타민과 아미노산, 유기산 등이 풍부해 피로 회복과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되며, 특히 ‘완도 자연 그대로 해변 포도’는 일반 포도에 비해 미네랄이 풍부하다.

완도 진일 시 군외면 해안도로를 이용하면 당일 수확한 포도를 구입할 수 있다.

한 농가 관계자는 “고품질의 해변 포도 생산을 위해 노력한 결과 캠벨얼리의 당도는 16 브릭스, 샤인 머스켓은 18.2 브릭스로 측정됐다”면서 “제철 맛은 달콤한 완도 해변 포도를 꼭 맛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 광양향 한일 카페리, 15년 만에 재개 ‘잔결음’

시, TF 구성…향로 조기 개설·협력체계 구축

상관·관광산업 진흥 기대…2027년 운항 목표

광양항을 국제 해양관광 관문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한일 카페리 운항 재개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가 민선 9기 핵심공약의 하나로 한·중·일 카페리 향로 개설을 제시했고 물류와 관광,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적극적인 추진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광양시에 따르면 박성현 시장이 최근 광양항을 찾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카페리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광양항 중마일반부두 사용을 건의했다.

시는 이달 중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향로 조기 개설과 조기 안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가 한일 카페리 운항에 적극적으로 나서게된 배경에는 물류와 관광이 함께 작동하는 국제항만의 역할을 해 나가기 위해서다. 여기에 화물만을 취급하는 국제항에 관광객까지 유입되면 지역상권 활

성화와 관광산업 진흥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고 국제항으로서의 위상도 높아지게 된다.

시는 한·중·일 카페리 향로 개설 중 우선 한일(광양~시모노세키) 간 카페리 운항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일단 운항 시기는 2027년을 주 3항차로 운항을 목표로 설정했다.

연간 관광객은 6만명, 화물은 2만8800TEU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일 카페리 운항이 재개되면 광양항의 운산물 등 화물 수송은 물론 광양 나아가 여수·순천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현 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광양향만공사 등과 실무 TF를 운영해 광양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최적의 카페리 운영 모델을 찾겠다”며 “광양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향로개설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2011년 1월 광양~일본 시모노세키 간 카페리 운항을 시작했으나 도호쿠 대지진으로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운영난을 이기지 못해 1년 뒤인 2012년 2월 중단됐는데 오는 2027년 취항되면 15년만에 재개되는 셈이다.

광양=김귀진 기자 kkin@gwangnam.co.kr

## 목포, 서남권 균형발전 핵심사업 발굴 ‘시동’

신항 해상풍력·K-김산업 메카 등 성장동력 확장

국립의대 등 의료·교통·산업 핵심 인프라 확충도

목포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책에 반영할 지역의 미래 성장과 서남권 균형발전을 이룰 핵심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2일 목포시에 따르면 전남 청사 상 황실에서 ‘통합특별시 공약 대응 전략 보고회’를 열고, 통합특별시 공약(안)과 연계해 발굴한 37개 대응과제의 정책 반영 전략을 점검했다.

보고회는 통합특별시 공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목표의 미래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사업별

대응 논리를 구체화해 통합특별시의 핵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전남광주대전환 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시정기획서를 면밀히 분석해 미래산업 8건, 균형발전 6건, 농생명산업 3건, 기본사회 5건, 문화관광 6건, 녹색정책 8건, 시민주권 1건 등 7대 전략 과제에서 총 37개 대응과제를 발굴했다.

주요 과제로는 목포신항 신규 산업단지 조성, MASGA 프로젝트 연계 합정 MRO 추진, 목포신항 해상풍력산업 클

러스터 조성, 목포역 복합환승센터 구축, 국립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 글로벌 K-김산업 메카 구축, 서남권 광역 컨벤션센터 건립, 영산강 하구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번 대응전략은 시가 비교우위에 있는 해양·항만·수산·문화관광 자원을 통합특별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확장하고, 의료·교통·산업 등 서남권 발전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개별 사업을 목포만의 지역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서남권 균형발전과 통합특별시 전체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별 필요성과 광역적 파급효과를 구체화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통합특별시 공약과의 연계성,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시급성, 광역 차원의 지원 필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강성희 시장은 “통합특별시 공약이 확정된 뒤에 움직이면 늦다, 사업별로 명확한 논리를 가지고, 통합특별시 소관부서를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며 “목포의 핵심사업이 정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목포시는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37개 과제별 통합특별시 소관부서와 정책 반영 협의를 본격화하고, 공약 확정과정과 추진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또 올해 하반기 통합특별시 공약이 최종 확정되면 과제별 반영 여부를 분석해 후속 대응에도 나선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 고흥 별미 ‘건어국’ 향토음식 발굴

역사 등 관광자원화…음식점 연계 홍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이 지역의 바다와 생활문화가 고스란히 담긴 향토음식 ‘건어국’ 알리기에 나섰다.

건어국은 말린 생선을 넣고 끓인 맑은 국에 명절이나 제사 뒤 남은 전을 함께 넣어 먹던 고흥의 전통 음식이다. 고흥에서는 예부터 마른 생선을 넣어 끓인 국을 ‘건어국’ 또는 ‘마른생선탕’이라고 불렀다.

특별한 양념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말린 생선에서 우러난 구수하고 시원한 국물에 전의 담백한 맛이 더해지면서 소박하지만 깊은 맛을 낸다.

건어국은 명절이나 제사를 지낸 뒤 남은 전과 집에 있던 마른 생선을 활용해 먹었던 음식인 만큼 고흥 사람들의 생활상과 음식문화가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 고흥의 수산물 식문화와 명절 음식문화가 한 그릇에 어우러지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쉽게 만나기 어려운 고흥만의 향토음식으로 이어져 왔다.



최근에는 일부 지역 음식점에서 ‘마른생선탕’이라는 이름으로 건어국을 메뉴로 선보이고 있다. 관광객과 방문객들도 음식점을 통해 건어국을 맛보며 고흥의 옛 밥상과 음식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고흥군은 건어국을 비롯해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음식과 식문화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관광자원으로 알릴 계획이다. 단순한 음식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음식에 담긴 역사와 조리법,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함께 발굴해 지역 음식점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고흥=김두성 기자

## 신안, 노후 건물번호판 2000개소 정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이 노후화 등으로 주소 식별이 어려운 건물번호판 2000개소를 교체, 주소정보 체계 재정비와 지역 미관 개선에 나섰다.

12일 신안군에 따르면 10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사업을 통해 임자면 1130개소와 증도면 870개소 등 총 2000개소 건물번호판을 바꿨다.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사업은 장기간 사용으로 빛이 바래거나 훼손·망실돼 주소 식별이 어려운 건물번호판을 무상으로 교

체하는 사업이다.

이는 주소정보의 식별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훼손되거나 빛바랜 번호판으로 인해 저해됐던 거리와 주거환경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앞으로도 읍·면별 노후 건물번호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교체사업을 추진해 정확하고 편리한 주소정보 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